

KEI

정책보고서
2019-11

P4G 파트너십 의제 개발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김호석 · 공현숙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공현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부영 환경부 서기관
강성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박사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제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9년 5월 26일
발행 2019년 5월 31일
등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305-5 93530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호석, 공현숙(2019), 「P4G 파트너십 의제 개발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5,000원

서 언

2017년 9월 UN 총회에서 출범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 및 파리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입니다. P4G는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의 SDGs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차 P4G 정상 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양한 P4G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외교부 주관으로 국내 플랫폼을 설립하여 P4G 소개, 파트너십 사업 참여 독려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P4G 회원국으로서 P4G 이니셔티브 활성화를 통해 지구적 SDGs 달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국내 정책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유효성 제고,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P4G 장기 의제를 개발하는 한편 P4G 국내 플랫폼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가 P4G 회원국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호석 박사와 연구진으로 참여한 공현숙 전문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환경부 강부영 서기관, GGGI 강성철 박사,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내부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김종호 박사, 이정석 박사 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5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제 용**

국문요약

지난 2018년 10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하 P4G)’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P4G 회원국 정상과 기관·기업·시민사회 파트너 대표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펜하겐 행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SDGs의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자원 제공, 투자 증진, 과학·기술 혁신 협력,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등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포함하는데 이는 P4G 이니셔티브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P4G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이니셔티브이다.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파트너십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 네트워킹, 국제적 인지도 등의 지원을 자금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과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P4G의 회원국으로서,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P4G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지구적 SDGs 파트너십의 기본 목적이기도 한데, P4G는 민관협력과 각계각층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SDGs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둘째, P4G는 우리나라의 산업, 제품, 기술, 지식, 경험이 국제적으로 진출·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SDGs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은 기업에게는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중요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P4G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에 P4G의 구조와 활동을 소개하여 여러 이해당사

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P4G는 이미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산업이 높은 경쟁력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핵심 참여국으로서 P4G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P4G와 국내 정책 연관성을 검토하여 정책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P4G의 목적과 비전, 구조와 파트너, 주요 활동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P4G 파트너십이 개발도상국 SDGs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세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P4G와 국내 정책의 연관성을 국제개발협력, 환경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P4G의 발전을 위한 기여와 국내 대응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P4G 발전 측면에서는 SDG 이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국내 대응 측면에서는 P4G 국내 플랫폼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논의한다.

주제어 : 2030 의제, SDGs,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민관협력

| 차례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SDGs 파트너십과 P4G	4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제2장 P4G의 구조와 활동	7
1. P4G의 목적과 구조	7
2. P4G의 파트너십 지원	10
3. 분야별 P4G 파트너십 현황	13
제3장 P4G의 SDGs 지원 강화를 위한 요소	20
1. SDG 파트너십 가치 제고를 위한 요소	20
2. 지구적 SDGs 도전의 반영	23
3. SDGs 상호연계성 고려	27
제4장 P4G 관련 국내 정책	31
1. 국제개발협력	31
2. 국내 환경산업 육성	49
3. 국내 기업 해외 진출	53
제5장 정책 제언	61
1. SDGs 지원 강화를 위한 P4G 장기 의제 제안	61
2. P4G 국내 플랫폼 강화	64
참고문헌	69
Abstract	73

| 표차례 |

〈표 1-1〉 P4G 코펜하겐 행동 선언(Copenhagen Commitment to Action)	2
〈표 1-2〉 SDG 17번 목표의 재정지원·기술이전·능력형성 관련 세부목표	3
〈표 1-3〉 UN DESA의 SDGs 파트너십 분류 및 정의	5
〈표 2-1〉 P4G 파트너의 유형 및 구성	9
〈표 2-2〉 P4G 이사회 명단	10
〈표 2-3〉 P4G 파트너십의 자금 운영·수령 자격	12
〈표 2-4〉 P4G Partnerships: 스타트업(start-up)	14
〈표 2-5〉 P4G Partnerships: 스케일업(scale-up)	17
〈표 3-1〉 SDGs 상호연계성의 유형 구분 사례	27
〈표 4-1〉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분야별 규모와 비중	34
〈표 4-2〉 2019년 국제금융기구의 출자·출연 계획	35
〈표 4-3〉 2019년 주요 비금융 국제기구 지원 계획	35
〈표 4-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및 추이	37
〈표 4-5〉 P4G 분야와 2019년도 부처 ODA 사업	38
〈표 4-6〉 2018년 GGHK 주요 발주처 및 유망 프로젝트 목록	51
〈표 4-7〉 수출바우처 신청 대상	53
〈표 4-8〉 20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예시)	54
〈표 4-9〉 2019년 K-Global 프로젝트	55
〈표 4-10〉 중소기업 해외 진출 장벽의 분류	58

| 그림차례 |

〈그림 2-1〉 5개 P4G 분야의 SDGs 관련성	8
〈그림 2-2〉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파트너십의 구분	11
〈그림 2-3〉 P4G 파트너십의 개념과 유형	13
〈그림 3-1〉 SDGs 달성 도전 요인 평가 사례: 아태지역	26
〈그림 3-2〉 SDG 2의 상호연계성	28
〈그림 3-3〉 SDG 7의 상호연계성	30
〈그림 4-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32
〈그림 4-2〉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SDG 분야별 예산 및 사업 수 비율	34
〈그림 4-3〉 2013~2019년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38
〈그림 4-4〉 녹색산업의 규모	50
〈그림 4-5〉 녹색산업의 종사자 수	50
〈그림 5-1〉 일반적 SDGs 파트너십 구축 과정과 P4G의 관련 요소	62

| 약어 |

10YFP	The 10 Year Framework for Programme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개년 계획)
3GF	Global Green Growth Forum (글로벌녹색성장포럼)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GGHK	Global Green Hub Korea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UN 고위급정치포럼)
IITP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정보통신기획평가원)
KAIT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A	Th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KOEF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MDG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NIPA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P4G	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SCP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VNRs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 (자발적국가검토)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2018년 10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하 P4G)’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P4G 회원국 정상과 기관·기업·시민사회 파트너 대표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펜하겐 행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코펜하겐 행동 선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된 지구적 차원의 공유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리더십과 가속화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장주도적 솔루션을 개발·확산하기로 합의하였다¹⁾.

2015년에 채택된 「2030 의제」에는 2030년까지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 그리고 기타 후속조치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의제는 SDGs 달성을 위한 자원인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을 국가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SDGs 이행수단으로 정의한다.²⁾

1) P4G(2018a).

2) UN(2015), 39단락.

〈표 1-1〉 P4G 코펜하겐 행동 선언(Copenhagen Commitment to Act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공동의 비전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 목표들을 정의한다.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비즈니스, 시민사회의 리더십과 가속화된 행동이 시급하다.

우리는 어떠한 단일 행위자도 우리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거나, 더 나은 성장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보건 혜택, 가치 있는 생태계의 보호, 기후변화의 위험 감소를 가져오는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식한다. 정부, 지자체, 도시, 비즈니스, 투자자,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들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

우리는 파트너십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번이, 사람들과, 지구, 번영의 혜택을 위한 규모와 속도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및 결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장 기회를 열어 주는 열쇠라고 믿는다.

우리는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의제를 상호 강화하는 민관 협력의 인큐베이터이자 촉진자로서 인식한다.

P4G를 통해 우리는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와 같은 P4G의 5개 분야들에 있어 구체적인 시장기반 해결책들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며,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며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P4G를 통해, 우리는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해결책과 민관협력 관련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은 장애물 해소, 야심찬 정책 실행 촉진, 시행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그들의 전반적 전략에 통합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 나가는 데 필요한 혁신과 기술 그리고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효과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빈곤에 대처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에 있어 전반적 도전과제에 필요한 지식, 네트워크 및 분야별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기구와 학계는 국가와 지역 전반에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확인하며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지식,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P4G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에 있어 중요한 발판으로서의 코펜하겐 P4G 정상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와 2020년 차기 P4G 정상회의 이후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을 개발하고 가속화하며 확대하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료: 외교부, “문제인 대통령 해외방문”,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79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검색일: 2019.4.30.

특히 SDGs의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자원 제공, 투자 증진, 과학·기술·혁신 협력,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등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포함하는데, 이는 P4G 이니셔티브가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 준다.

〈표 1-2〉 SDG 17번 목표의 재정지원·기술이전·능력형성 관련 세부목표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부목표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을 동원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특히 UN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증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합의에 기초한 지식공유를 증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 등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보급·확산을 촉진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SDGs를 위한 파트너십”, http://ncsd.go.kr/app/sub07/217_tab2.do, 검색일: 2019.4.30.

P4G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이니셔티브이다.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파트너십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 네트워킹, 국제적 인지도 등의 지원을 자금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과 구별된다.

P4G는 2011년에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 이하 3GF)’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³⁾ 우리나라는 3GF에 이어 P4G 출범에도 핵심 파트너 국가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에너지와 녹색성장 분야와 더불어 SDGs 분야에서도 덴마크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3) 3GF, “The Forum”, <http://www.globalgreengrowthforum.com/the-forum/>, 검색일: 2019.4.30.

2. SDGs 파트너십과 P4G

「2030 의제」 이행의 출발은 국가, 지역 및 지구적 단위의 정책, 이니셔티브에 SDGs를 비롯한 의제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 단위에서는 분야별 정책에 SDGs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고, 지구·지역 단위에서는 분야별 SDGs 이행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행 목표 중 하나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은 「2030 의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행수단이다. 의제는 2030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로 SDGs를 제시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정의한다.⁴⁾ SDGs 달성을 포함한 의제 이행의 책임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에 있지만, 구체적 이행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UN DESA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SDGs 협력 영향의 극대화 (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을 “정부 간 합의된 발전 목표와 공약 이행에 기여하는 정부, 국제기구, 주요 단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다중 이해당사자 이니셔티브”로 정의하였다.⁵⁾

이 가이드북에서는 SDGs 파트너십을 자원의 결합 방식과 협력의 편익 유형에 따라 ‘영향/교환’, ‘결합/통합’, ‘변환’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영향/교환’ 유형은 참여자 일방 혹은 상호 간에 SDGs 이행에 도움이 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교환하는 방식의 협력관계이다. 둘째, ‘결합/통합’ 유형은 참여자가 각자의 편익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의 협력관계이다. 셋째, ‘변환’ 유형은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보유한 참여자가 공통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만들어 가는 방식의 협력관계이다.

P4G 파트너십하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제공, 5개 P4G 분야에서의 SDGs 달성 및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그리고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은 UN DESA가 제시하는 세 유형의 파트너십 중에서 ‘변환’ (transform) 유형을 통해 가장 잘 정의된다.

4) “본 의제는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 ...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업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2030 의제 서언)

5) Stibbe, Reid, and Gilbert(2018).

〈표 1-3〉 UN DESA의 SDGs 파트너십 분류 및 정의

구분	영향/교환 Leverage/Exchange	결합/통합 Combine/Integrate	변환 Transform
정의	- 한쪽이 상대방 이행에 기여 - 한쪽 혹은 양쪽의 이행 제고를 위해 자원을 교환	- 개별적 이행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이 자신의 자원을 결합	-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행위자들이 공동 작업
특징	- 거래, 일방적 이전 - 기술, 지식, 자금의 상호 교환 - 양쪽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포함	- 병행 생산, 상호책임성, 혁신적 접근 -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창조적 대화 포함	- 복수 행위자들의 독특하고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포함 -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참여를 위한 복수 이해당사자의 대화가 요구됨
적용 여건	- 한쪽이 상대방에게 가치가 더 높은 어떤 것을 보유한 경우	-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통해 양쪽 모두에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경우	- 이슈가 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경우

자료: Stibbe, Reid, and Gilbert(2018), p.9; 김호석 외(2018)에서 재인용.

3.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우리나라는 P4G의 회원국으로서,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P4G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지구적 SDGs 파트너십의 기본 목적이기도 한데, P4G는 민관협력과 각계각층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 SDGs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둘째, P4G는 우리나라의 산업, 제품, 기술, 지식, 경험이 국제적으로 진출·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의 SDGs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은 기업에게는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중요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P4G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에 P4G의 구조와 활동을 소개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P4G는 이미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산업이 높은 경쟁력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핵심 참여국으로서

P4G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P4G와 국내 정책 연관성을 검토하여 정책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P4G의 목적과 비전, 구조와 파트너, 주요 활동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P4G 파트너십이 개발도상국 SDGs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세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P4G와 국내 정책의 연관성을 국제개발협력, 환경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P4G의 발전을 위한 기여와 국내 대응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P4G 발전 측면에서는 SDG 이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국내 대응 측면에서는 P4G 국내 플랫폼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논의한다.

제2장

P4G의 구조와 활동

1. P4G의 목적과 구조

가. P4G 이니셔티브의 목적

P4G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했던 3GF⁶⁾를 SDGs 맥락에서 확대·발전시킨 이니셔티브이다. 3GF는 참여국들에게 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 이니셔티브와 정책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⁷⁾

P4G는 3GF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시장기반 솔루션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아이디어를 계승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킹, 우수 사례 소개, 자원, 그리고 시장 인지도라는 실질적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⁸⁾

P4G는 전체 지속가능발전 분야 가운데 인간의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수요가 큰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이 분야의 SDGs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을 둔다.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은 ‘P4G 파트너십’으로 정의되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되며, P4G를 구성하는 국가·기관·기업·시민사회 파트너는 이들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6) 3GF는 민관협력을 통한 녹색성장 촉진을 비전으로 하는 덴마크 주도의 고위급 포럼이다.

7) 3GF, “The Forum”, <http://www.globalgreengrowthforum.com/the-forum/>, 검색일: 2019.4.30.

8) P4G, “What is a P4G Partnership”,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about-p4g#ac-p4g-what-is-p4g>, 검색일: 2019.4.30.



자료: P4G, “Our Focus Areas”, 검색일: 2019.1.14; SDG Knowledge Platfor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검색일: 2019.1.14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2-1〉 5개 P4G 분야의 SDGs 관련성

나. P4G 구조

P4G는 P4G 파트너(P4G partners)와 P4G 이사회(the P4G Board of Directors), 그리고 사무국 역할을 하는 P4G 글로벌허브(P4G Global Hub)로 구성된다.

1) P4G 파트너

파트너는 그 유형에 따라 국가파트너(country partners), 기관파트너(organizational partners), 기업파트너(business partners), 시민사회파트너(civil society partners)로 구분된다.⁹⁾ 국가파트너는 기존 3FG 참여국이었던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과 새롭게 참여를 결정한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이다. 국가파트너, 즉 P4G 회원국들은

9) 이 네 유형의 P4G 파트너는 파트너십 참여자를 의미하는 ‘P4G 파트너십 파트너’와 구분된다.

해당 국가에서의 P4G 파트너십 참여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국내 플랫폼(national platform)’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 27일에 외교부 주관으로 국내 플랫폼을 출범하고 지금까지 총 4회의 국내 플랫폼 회의를 개최하였다(2019년 6월 30일 기준).

국가파트너 외에도 기관파트너, 기업파트너, 그리고 시민사회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관파트너는 각 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의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다.

〈표 2-1〉 P4G 파트너의 유형 및 구성

국가파트너	기관파트너	기업파트너	시민사회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네덜란드 · 덴마크 · 멕시코 · 베트남 · 에티오피아 · 칠레 · 케냐 ·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40 · GGGI · IFC · World Economic Forum · World Resources Institute (Host) · UN Global Co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ibaba · Chinese Association for Circular Economy · foodpanda · Grundfos · Hanwha Q Cells · Kenya Private Sector Alliance · Novozymes · State of Green ·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na Environment Protection Foundation · Climate Policy Initiative · DanChurchAid · Danish Refugee Council · Forum for the Future

자료: P4G, “Our Network”,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our-network>, 검색일: 2019.4.30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P4G 이사회

P4G 이사회는 13인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제출된 P4G 파트너십 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진다. 2019년 6월 현재, 이사회 명단은 〈표 2-2〉와 같다.

〈표 2-2〉 P4G 이사회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KADU BEYENE, COMMISSIONER, Ethiopian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Commission· BØRGE BRENDE, PRESIDENT, World Economic Forum, Geneva· KARIN FINKELSTON, VICE PRESIDENT, PARTNERSHIPS, COMMUNICATION, AND OUTREACH, IFC· SIGRID KAAG,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DONG KWAN KIM, CHIEF COMMERCIAL OFFICER, Hanwha Q CELLS· LISE KINGO, CEO &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PEDER HOLK NIELSEN, PRESIDENT AND CEO, Novozymes· FRANK RIJSBERMAN, DIRECTOR GENERAL,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DREW STEER, PRESIDENT AND CEO, World Resources Institute· MARK WATTS, EXECUTIVE DIRECTOR, C40· YOO YEON CHUL, AMBASSADOR FOR CLIMATE CHANGE, Republic of Korea· SERGIO SILVA CASTAÑEDA, HEAD OF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Mexico Ministry of Economy· RASMUS PREHN, 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Danish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

자료: P4G, "About P4G",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about-p4g#ac-p4g-what-is-p4g>, 검색일: 2019.4.30.

3) P4G 글로벌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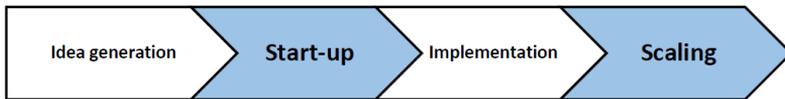
‘P4G 글로벌허브’는 P4G의 사무국과 이행기구(implementing agency)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는 P4G 기관파트너이기도 한 World Resources Institute(WRI)가 글로벌허브를 주관한다.

2. P4G의 파트너십 지원

가. P4G 파트너십 유형

P4G 이니셔티브의 핵심적인 기능은 ‘P4G 파트너십’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P4G는 스타트업(start-up)과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 있는 파트너십에 한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이때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¹⁰⁾

- 스타트업: 타당성 테스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초기 단계의 유망 사업
- 스케일업: 규모 확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혁신 단계의 사업



자료: P4G(2018b), p.4.

〈그림 2-2〉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파트너십의 구분

이 두 유형에 속하는 사업이 P4G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¹¹⁾

- 파트너십은 하나 이상의 영리적 파트너(commercial partner)와 비영리 파트너(non-commercial partner)를 포함해야 한다.
- 파트너십의 사업은 5개 P4G 분야 중 하나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 파트너십의 사업은 하나 이상의 개발도상국(ODA 수급 자격이 있는 OECD DAC 목록 포함 국가)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파트너십의 결과는 P4G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새롭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 파트너십은 SDG 달성의 장애요인(재정, 제도, 운영 등)을 혁신적이고 확장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P4G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P4G 최첨단 파트너십 상(P4G State-of-the-Art Partnership Awards)’을 수여한다. 이 상은 매년 신청된 사업 가운데 5개 P4G 분야에서 각각 1개의 ‘최첨단 파트너십(State-of-the-Art Partnership)’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2019년 9월 23일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10) P4G(2018b), p.2.

11) P4G(2018b), pp.2-3.

나. P4G의 파트너십 지원

1) P4G 파트너십 촉진(P4G Partnership Facilitation)

파트너십에 대한 촉진(facilitation)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P4G 이니셔티브의 독특한 기능이다. 이것은 파트너십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투자자를 찾거나 우수한 사업 사례 학습, 기업·정부 지도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P4G는 파트너십에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지구적 차원의 행사에서 높은 주목과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P4G 파트너십 자금지원(P4G Partnership Funding)

P4G는 스타트업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달러, 스케일업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달러 한도의 자금을 지원한다. 두 유형 모두 매년 11월에 파트너십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해서 스타트업은 다음 해 6~7월, 스케일업은 다음 해 9월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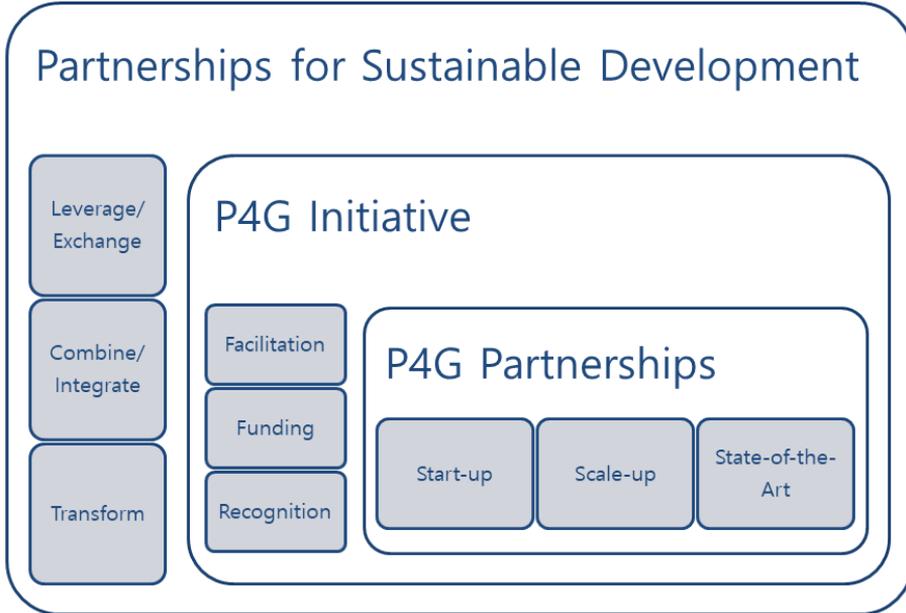
〈표 2-3〉 P4G 파트너십의 자금 운영·수령 자격

구분	관리 파트너 자격으로 P4G 기금 운용 가능 여부	관리 파트너로부터 P4G 기금 수령 가능 여부
NPO(기업 협회를 포함)	○	○
비DAC 국가에 소재한 NPO	○	○
P4G 이사회 회원: 국가 및 기업 파트너	×	×
P4G 관리 파트너: WRI	×	×
P4G 이사회 회원: 기관 파트너(WRI 제외)	×	○ (예외 적용)
P4G 국내 플랫폼	×	○ (예외 적용)
P4G 이사회에 속하지 않은 영리기관	×	○ (예외 적용)
다자간 정부기구	×	×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파트너	×	×
학술기관	×	○
공공기관	×	○

자료: P4G(2018b).

3) P4G 파트너십 인지도(P4G Partnership Recognition)

P4G는 파트너 네트워크, 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종 선정된 파트너십과 사업이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¹²⁾



자료: P4G(2018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P4G 파트너십의 개념과 유형

3. 분야별 P4G 파트너십 현황

P4G는 녹색성장을 통한 UN의 SDGs 달성, 파리협정 이행과 같은 지구적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물(SDG 6), 에너지(SDG 7), 순환경제(SDG 12), 도시(SDG 11), 식량/농업(SDG 2)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주체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비영리 파트너(NGO, 시민사회, 비영리 사업

12) P4G, "What is a P4G Partnership",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about-p4g#ac-p4g-what-is-p4g>, 검색일: 2019.4.30.

단체 등)가 포함되는데,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주체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은 비영리 단체를 비롯한 학계, 공공기관, P4G 국내 플랫폼이나 P4G 이사회 국제기구 등도 가능하다. P4G 사업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사업 또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 솔루션과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표 2-4〉와 〈표 2-5〉는 P4G 파트너십을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가. 스타트업 파트너십

〈표 2-4〉의 start-up 유형에는 물(2개), 에너지(2개), 순환경제(3개), 식량/농업(4개)의 분야로 구성된 총 11개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물 분야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물 접근성과 안전성을 갖춘 물 공급 시스템의 대체, 음용수 인프라를 위한 금융 모델 개발이 있고, 에너지 분야에는 태양열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태양광, 정수 필터 등이 필요한 가정에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제시되어 있다. 순환경제 분야에는 쓰레기수거량 개선 및 폐기물의 상업적 용도로의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식량/농업 분야에는 빅데이터와 식량안보와 결합하여 농민이 효율을 높이고 생산적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표 2-4〉 P4G Partnerships: 스타트업(start-up)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물			
Business Humanitarian Partnership	- Danish Refugee Council - Grundfos	우간다	- 난민촌과 주변 외딴 지역에 지속가능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물 접근성과 안전성을 갖춘 태양열 구동의 물 공급 시스템으로 대체
Partnership for Blended Finance on Water	- ASSIST - Grundfos	베트남	- 음용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모델 개발

〈표 2-4〉의 계속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에너지			
Energise Africa	- Ethex, Lendahand	아프리카	- 합리적 가격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Global Distributors Collective	- BoP Innovation Centre - Hystr	전 세계	- 태양광, 정수 필터 등의 제품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배포하는 사업 지원 - 시간 절약, 비용 절감,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사업 성과 향상 지원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Retrofitting of Chinese Industrial Parks	- China Association of Circular Economy - Carbon Trust - ODI	중국	-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단지에 새로운 모델과 모범 사례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해결
Partnership for a New Plastics Economy in Kenya	- KEPSA - Coca-Cola Beberages Africa - PETCO - RETRAK - BESIC Group Ltd - Kenya Climate Innovation Center	케냐	- 쓰레기수거량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상업적 용도로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지원
	- Da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Center for Clean Air Policy (CCAP)		

〈표 2-4〉의 계속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Vietnam Materials Marketplace	- VBCSD - VCCI - United States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athway21	베트남	- 호황인 제조 산업을 순환경제로 유도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재거래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감량 지원
식량/농업			
Food Delivery Companies for Reducing Single-Use Plastics	- Forum for the Future - Foodpanda	동남아시아	- 음식배달 서비스 부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Indonesia Food Loss and Waste Action Partnership	- The Food and Land Use Coalition - WBCSD - World Resources Institute - The New Climate Economy - Olam - YARA	인도네시아	-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50% 줄이기 위한 부문 간 프로그램 구축
Sustainable Food Platform	- DCA actalliance - Arla Foods Ingredients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 식품 및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기반 해결책 지원
Towards Large-Scale Digital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Farmers	- CGIAR Platform - Digital Impact Alliance - Viamo	말라위	- 빅데이터와 식량안보와 결합하여 농민이 효율을 높이고 생산적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자료: P4G, “P4G Partnerships”,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p4g-partnerships>, 검색일: 2019.4.29.

나. 스케일업 파트너십

〈표 2-5〉의 scale-up 유형에는 에너지(3개), 순환경제(1개), 도시(3개), 식량/농업(1개)의 분야로 구성된 총 8개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 태양광시스템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등이 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역 조성을 통한 혜택 증진 및 산업 생산으로 인한 환경영향 억제를 지원하며, 도시 분야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을 위한 툴 제공, 성공적인 녹색물류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 전기버스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농업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체제 및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 유도 사업을 제시한다.

〈표 2-5〉 P4G Partnerships: 스케일업(scale-up)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에너지			
Africa GreenCo	- SAPP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 절감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민간 부분 투자 유치
Clean Energy Investment Accelerator	- NREL - World Resources Institute - Allotrope Partners	콜롬비아, 베트남	- 청정에너지 조달 - 청정에너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성장을 위한 경제 개선 - 공공부문과의 협력하여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강화
Integrated Decentralised Electrification in Africa (IDEA) Partnership	-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 Standard Microgrid	잠비아	- 지불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미니그리드 태양광시스템을 통해 전력 공급 지원

〈표 2-5〉의 계속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순환경제			
Sustainable Special Economic Zones	- Made in Africa Initiative - LADOL - SYSTEMIQ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 지속가능한 특별경제구역 조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권 문제 해결, 사회적 혜택 증진 및 산업 생산의 환경 영향 억제
도시			
Cities Climate Action Project Supported by the Building Efficiency Accelerator	- Copenhagen Centre on Energy Efficiency - World Green Building Council - Danfoss - World Resources Institute - Americas - Johnson Controls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페루, 파나마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에너지효율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구현을 위해 필요한 툴 제공
Global Smart Green Logistics Innovation Partnership	- China Environmental Protection Foundation - Cainiao - Alibaba.com	중국	- 중국 샤먼시의 성공적인 녹색물류 시범 프로그램을 중국의 다른 도시로 확대 - 녹색물류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플랫폼을 제공해 제품의 픽업 및 발송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모니터링 제공, 포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배송으로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

〈표 2-5〉의 계속

제목	사업		
	주체	지역	내용
The Zero Emission Bus Rapid-deployment Accelerator	-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 C40 Cities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메데인, 기타 라틴아메리카 도시	- 차량 충전, 파일럿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제로 방출 등을 통해 도시의 전기버스 성장 지원
식량/농업			
The Africa Innovation Lab for Climate Finance	- DBSA(Development Bank of Southern Africa) - FONERWA - Climate Policy Initiative - The Lab(Driving Sustainable Investment)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 지속가능한 금융을 파악,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체제 및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 유도

자료: P4G, "P4G Partnerships",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p4g-partnerships>, 검색일: 2019.4.29.

제3장

P4G의 SDGs 지원 강화를 위한 요소

P4G는 다양한 혁신적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중 하나이다. P4G의 5개 분야가 SDGs 주요 목표들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P4G 파트너십들이 개발도상국 SDGs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장에서는 실질적인 SDGs 이행 지원 측면에서 P4G 파트너십이 고려해야 할 세 범주의 요소들을 제시한다.

1. SDG 파트너십 가치 제고를 위한 요소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노력을 통해서 얻어 수 없는 가치를 얻기 위해 형성된다.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편익 혹은 가치는 매우 다양하며, 이 중 어떤 것이 실현될 것인지는 협력이 실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SDGs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P4G 파트너십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UN DESA(2018)가 제시한 11개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 연결(connection)

SDGs를 위한 파트너십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P4G 파트너십은 크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보완(complementarity)

파트너십은 이해당사자 간의 연결을 통해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P4G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SDGs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국제적으로 조달하도록 촉진한다.

- 시스템 전환(system transformation)

파트너십은 참여 이해당사자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전을 해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P4G가 촉진하는 민관협력 체계에서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도전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표준(standards)

다자간 파트너십은, 특히 정부가 협력에 참여하는 경우 새로운 규범이나 표준의 수립·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P4G는 선진국 정부와 기업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 및 표준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 혁신(innovation)

파트너십은 서로 다른 지식, 아이디어, 경험, 자원을 가진 참여자 간의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얻지 못하는 혁신적 접근이나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P4G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 총체적 접근(holism)

일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도전은 복잡한 상호연계성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폭넓은 범위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P4G 국내 플랫폼의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공유된 학습(shared learning)

파트너십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국제적 파트너십의 경우 공여국이 수여국에 기술이전이나 능력형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P4G에서는 국제기구와 학계가 이러한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유된 위험(shared risk)

파트너십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재정적, 기술적, 금융적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P4G는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주체의 사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위험·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시너지(synergy)

파트너십은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행동, 자원의 공유, 규모의 경제, 중복성 제거 등을 통해서 개별적 대응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4G은 개발도상국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규모(scale)

파트너십은 사업의 성과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국제적 파트너십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더 큰 장점이 있다. P4G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임계적 노력(critical mass)

파트너십을 통해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큰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도전을

해결할 수 있다. P4G는 개발도상국 사회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SDGs 도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지식, 기술, 자원을 조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지구적 SDGs 도전의 반영

P4G는 주어진 재원을 고려하여 제한된 수의 파트너십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P4G 이사회는 매년 제출되는 파트너십 신청서 중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지구적 SDGs 달성 수준 및 도전 요인이다. P4G는 지구적 SDGs 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파트너십 선정 역시 이에 상응하도록 이루어져 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UN ECOSOC(2018)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 등 5개 P4G 분야에서 지구적 이행 현황 및 도전 요인을 요약 제시한다.

○ 식량·농업 영역

2018년 UN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상태로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³⁾ FAO의 식량 불안정 경험 척도(FIES: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9.3%로 조사되었다.¹⁴⁾ 기아 종식,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른 SDGs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식량, 환경, 물과 위생, 기후변화, 사회 정의 등과 연결된다.

○ 물 영역

2015년 기준 안전한 식수공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52억 명이며, 8억 4,400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인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¹⁵⁾ 최빈국의 경우 인구의 27%만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¹⁶⁾ 물과 위생에 관한 「UN 물과 위생 종합보고서

13) UN ECOSOC(2018), p.4.

14) UN ECOSOC(2018), p.4.

15) UN ECOSOC(2018), p.9.

(Synthesis Report on Water and Sanitation)」는 현재의 이행 속도로는 세계가 SDG 6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¹⁷⁾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물과 관련된 '식수 공급과 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프로그램, 농업농수, 홍수 예방 등에 쓰이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120억 달러에서 2017년 9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¹⁸⁾ 또한 2017년 기준 80%가 넘는 국가에서 WASH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재원이 불충분하다고 전망하였다.¹⁹⁾

○ 에너지 영역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전력 소비량은 78%에서 87%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약 10억 명의 인구는 전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²⁰⁾ 가스, 전기와 같은 깨끗한 연료와 기술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는 2016년에는 59%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0년 이래로 약 10%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다.²¹⁾ 다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30억 명이 여전히 고체연료(나무, 석탄 등)와 열악한 요리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household air pollution)으로 연간 약 400만 명이 사망한다는 발표가 나왔다.²²⁾

○ 도시 영역

국제사회는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도시가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주택, 사회기반 시설 확보 등과 같이 도시 확장과 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환경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16) UN ECOSOC(2018), p.10.

17) UN ECOSOC(2018), p.12.

18) UN ECOSOC(2018), p.12.

19) UN ECOSOC(2018), p.13.

20) UN ECOSOC(2018), p.3.

21) UN ECOSOC(2018), p.13.

22) WH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Health",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household-air-pollution-and-health>, 검색일: 2019.9.10.

있다. UN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과 관련된 관심사 중 하나는 비공식 거주 개선이다. 도시 지역의 비공식 거주지역은 1990년 46%에서 2014년 23%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도시 인구집중에 따라 비공식 거주지역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비공식 거주지역 인구는 6억 8,900만에서 8억 8,100만 명으로 증가했다.²⁴⁾

○ 순환경제 영역

2018 HLPF SDG 12 세션에서 UN 환경(UN Environment)은 ‘2018-2022 하나의 지구 5개년 전략을 위한 하나의 계획(Strategy 2018-2022: One Plan for One Planet)’을 소개했다. 이는 UN 환경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가능소비생산을 위한 10년 프로그램(10YFP)의 일환으로, 네 가지 공동 이행목표, 전략적 원칙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이행목표는 ① SDG 12 이행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 전환을 돕는 도구와 솔루션 제공, ③ SCP의 화합적인 이행의 주도, ④ SCP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공과 환경적·사회적 문제 제고 역할 등이다.²⁵⁾

23) UN ECOSOC(2018), p.15.

24) UN ECOSOC(2018), p.15.

25) UN Environment(2018), p.2.

GOAL 1	International poverty	National poverty	Spending on essential services			
GOAL 2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revalence of stunting	Prevalence of malnutrition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GOAL 3	Maternal mortality	Births attended by skilled personnel	Under-5 mortality	Neonatal mortality	HIV infections	Tuberculosis incidence
	Malaria incidence	Mortality from NCDs	Suicide mortality	Road traffic death	Unintentional poisoning (mortality)	Health worker density
GOAL 4	Organized learning (before primary)	Inequality indices for education	Organized teacher training			
GOAL 5	Women in parliaments & local governments	Women in managerial positions				
GOAL 6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afely managed sanitation				
GOAL 7	Access to electricity	Reliance on clean energy	Renewable energy share	Primary energy supply		
GOAL 8	Real GDP per capita (growth)	Commercial bank & ATM	Real GDP per employed (growth)	Material footprint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Unemployment rate
GOAL 9	Manufacturing value added	Manufacturing employment	CO ₂ emissions intensity	R&D expenditure	Medium & high-tech industry VA	Mobile network coverage
GOAL 10	Gini coefficient	Labour share of GDP				
GOAL 11	Urban slum population	Economic loss from disasters				
GOAL 12	Material footprint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GOAL 13	GHG emissions	CO ₂ emissions per manufacturing VA				
GOAL 14	Ocean Health Index					
GOAL 15	Forest area (% of land)	Terrestrial & freshwater biodiversity	Mountain biodiversity	Red List Index		
GOAL 16	Intentional homicid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urrent rate of progress needs to be MAINTAINED to meet the target
- Need to ACCELERATE current rate of progress to meet the target
- Current trend needs to be REVERSED to meet the target

주: 녹색: 2015년 이후 충분한 성과를 보이며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노란색: 2015년 이후 성과가 충분하지 않고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속화 필요, 빨간색: 성과 없음
 자료: UN ESCAP(2017), p.6.

〈그림 3-1〉 SDGs 달성 도전 요인 평가 사례: 아태지역

3. SDGs 상호연계성 고려

「2030 의제」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targets)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표와의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을 고려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SDGs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P4G 파트너십은 자신의 사업 목표가 다른 SDGs와 어떤 상호연계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P4G 분야 중 식량·농업과 에너지를 사례로 일반적인 SDGs 상호연계성을 살펴본다.

SDGs 등장 이후 목표 간 상호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요소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정한 목표 간의 관계가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분석되기 시작한 것은 SDGs 등장 이후부터이다. 목표 간에 규명되는 상호연계성은 S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요소로 여겨진다. Nilsson, Griggs, and Visbeck(2016)은 SDGs 상호연계성을 <표 3-1>과 같이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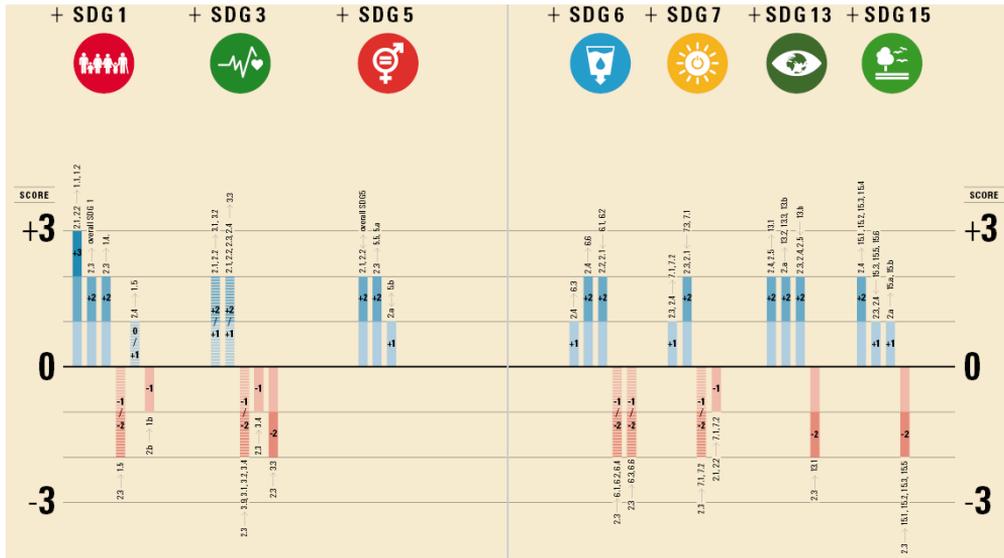
<표 3-1> SDGs 상호연계성의 유형 구분 사례

유형	설명
불가분(indivisible)	다른 목표의 달성과 불가분하게 연계
강화(reinforcing)	다른 목표의 달성을 직접적으로 지원
촉진(enabling)	다른 목표의 달성 여건을 개선
일관적(consistent)	긍정적, 부정적 연계성 없음
제약(constraining)	다른 목표의 달성 여건을 악화
상충(counteracting)	다른 목표의 달성과 충돌
상쇄(cancelling)	다른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

자료: Nilsson, Griggs, and Visbeck(2016), p.321.

가. 식량·농업 분야의 SDGs 상호연계성

SDGs에서 식량·농업 관련 목표는 SDG 2로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들 목표의 SDGs 상호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자료: ICS(2017), p.71.

〈그림 3-2〉 SDG 2의 상호연계성

○ SDG 1. 빈곤

식량·농업은 빈곤 퇴치를 위한 핵심적 분야이다. P4G 파트너십을 통한 식량·농업 분야의 개선은 빈곤 퇴치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다.

○ SDG 3. 건강·웰빙

충분한 양질의 식량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또한 식량 생산의 증가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다.

- SDG 5. 양성평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 개선과 농산물 생산량 증가는 여성의 권리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 SDG 6. 물·위생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식량 생산에 필수적이다. 반면 식량 생산은 용수 수요를 증대하고 수질을 악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충성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 SDG 7. 에너지

농업, 식량 생산 및 소비는 에너지 이용가능성에 크게 의존한다. 반면 농업 부문의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는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 SDG 13. 기후변화

농업은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이다. 반면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위협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적응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 SDG 15. 육상 생태계

농업 활동은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농업 생산 증가는 산림 훼손, 토양질 하락 등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악화할 수 있다.

나. 에너지 분야의 SDGs 상호연계성

에너지는 발전을 위한 거의 모든 요소와 관련된다. 특히 에너지 영역의 지속가능발전 제고는 다음 목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SDG 1. 빈곤

에너지 접근 개선은 빈곤 퇴치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반면 빈곤의 해소는 에너지 소비를 증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상충성 해소가 필요하다.

○ SDG 2. 기아

에너지는 농업 생산에 중요한 투입요소인 동시에, 농업은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을 제공한다.

○ SDG 6. 물·위생

에너지 생산에 상당한 물이 사용된다는 것은 ‘물-에너지 넥서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물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SDG 8. 고용·성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산업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에너지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 SDG 13.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자료: ICS(2017), p.165.

〈그림 3-3〉 SDG 7의 상호연계성

제4장

P4G 관련 국내 정책

P4G 파트너십은 공공 부문, 기업, 시민단체 등 SDGs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한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을 때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 P4G 회원국은 이러한 제반 활동이 각 국가의 여타 SDGs 이행 노력이나 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는 SDG 17의 14번째 세부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 국제개발협력

가. 개발도상국 SDGs 지원 기본방향

우리나라는 「2030 의제」가 채택된 직후인 2015년 11월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 SDGs 이행 지원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ODA 전략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그리고 중점협력국 지원전략 등을 포함한다. 제2차 계획은 2016~202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비전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선정하였다.

제2차 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던 MDGs를 SDGs가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우리나라 ODA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 목표와의 정합성이 제고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분야별 자원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 개발도상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 등 SDGs 방향에 부합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2차 계획에서는 ‘내실 있는 ODA’의 이행수단으로 사업 발굴 단계에서 SDGs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2030 의제」 맥락에서 우리나라 ODA의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SDGs의 연계성을 ‘정책부합성’의 한 요소로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SDGs 이행 지원 기능이 높은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추진한다.²⁶⁾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p.3.

〈그림 4-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

26) 관계부처 합동(2015),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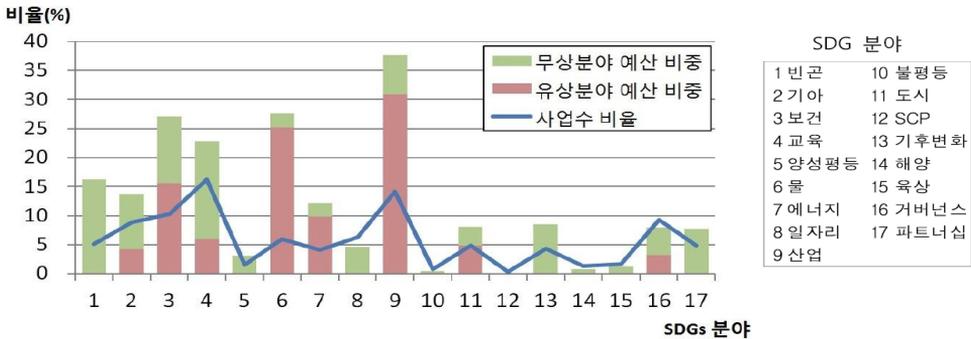
2018년에 수립된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개발도상국 SDGs의 이행 지원 강화를 2019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에 반영하였다.²⁷⁾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추진
 - 통합적 ODA 추진 기반 구축
 - 사업 간 연계 강화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
- 글로벌 가치와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 개발도상국 SDGs 이행 지원
 - 인도주의 지원 확대
 -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
- ODA 분야 국민참여 확대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 범국민 이해·참여 증진
 - 민관협력 사업 확대 및 내실화

2019년 계획에서는 기아 종식(SDG 2), 교육(SDG 4), 산업(SDG 9), 보건(SDG 3), 거버넌스(SDG 16)를 주요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개발도상국 SDGs의 이행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27) 관계부처 합동(2018), p.3.

28) 관계부처 합동(2018), p.2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22.

〈그림 4-2〉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SDG 분야별 예산 및 사업 수 비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도상국 SDGs의 이행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한국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 간 협력지원(방글라데시), 기관 간 협력지원(네팔),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후속 지원(네팔), K-Lab 설치 및 운영(미얀마), 개발도상국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운영(온두라스), 개발도상국정보통신방송 정책 자문(캄보디아) 등 6개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ODA 규모는 2018년 144억 1,000만 원, 2019년 200억 7,000만 원(요구)으로 39%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46.7%), 개발컨설팅(17.9%), 기술협력-연수사업(9.6%), 프로그램(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4-1〉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분야별 규모와 비중

구분		교통	보건	교육	환경	농림수산	공공행정	인도적지원	산업에너지	기타
규모 (억원)	유상	3,589	1,927	678	2,235	894	638	0	1,206	447
	무상	303	1,479	2,088	408	1,560	1,501	1,545	1,047	5,505
	총계	3,892	3,406	2,766	2,643	2,454	2,139	1,545	2,253	5,952
비중 (%)	유상	30.9	16.6	5.8	19.2	7.7	5.5	0.0	10.4	3.8
	무상	2.0	9.6	13.5	2.6	10.1	9.7	10.0	6.8	35.7
	총계	14.4	12.6	10.2	9.8	9.1	7.9	5.7	8.3	22.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3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은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다. 다자간 파트너십은 크게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구분된다.

〈표 4-2〉 2019년 국제금융기구의 출자·출연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증자	양허성 기금	신탁기금(출연)	합계
WB	-	1644.73	675.74	2320.47
ADB	-	246.90	169.50	416.40
AfDB	1.00	356.40	135.60	493.00
IDB	-	-	164.98	164.98
EBRD	-	-	25.88	25.88
IMF	-	-	56.50	56.50
GCF	-	124.30	-	124.30
AIIB	1436.30	-	-	1436.33
CABEI	1215.00	-	-	1215.00
합계	2652.33	2372.33	1228.20	6252.86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35.

국제금융기구 분야는 일반적인 개발금융과 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에 따라 조성되는 기후금융을 포함한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세계은행 및 지역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내 EDCF나 KSP 사업과 연계하여 다자협력-양자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표 4-3〉 2019년 주요 비금융 국제기구 지원 계획

(단위: 억원)

UNDP	WHO	UNICEF	UNHCR	WFP
118.7	88.8	67.8	50.9	2.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35.

UN을 비롯한 비금융 국제기구와 협력은 각 기구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협력의 기본방향이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에는 UNDP, WFP, UNICEF, WHO, UNHCR을 중점협력 기구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비중점 협력기구와는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기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여를 차별화하고 국제적 가시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²⁹⁾

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 현황

UN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01년 6월에 발표됨에 따라 세계 각국과 UN·OECD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후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식 채택되면서 이에 대한 이행 및 전 세계적 인도적 위기의 급증과 만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UN, OECD, G20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적 공동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사업의 증가 및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재원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또한 부족한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에 가입한 이후, 정책 일관성 및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해 왔다. 2017년 ODA 지원 규모(순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양자 간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원조 규모 확대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 관계부처 합동(2018), p.23.

〈표 4-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및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ODA (십억원)	1,921.40	1,955.20	2,166.90	2,606.90	2,493.00	3,048.20	3,492.20
양자간원조 비중(%)	1,433.40 (74.6)	1,469.80 (75.2)	1,661.70 (76.7)	1,797.20 (68.9)	1,829.40 (73.4)	2,387.70 (78.3)	2,704.90 (77.5)
무상원조 비중(%)	885.5 (61.8)	930.5 (63.3)	1,016.00 (61.6)	1,143.2 (63.6)	1,170.50 (64.0)	1,329.60 (55.7)	1,543.70 (57.0)
유상원조 비중(%)	547.9 (38.2)	539.3 (36.7)	633.8 (38.4)	654 (36.4)	658.9 (36.0)	1,058.10 (44.3)	1,161.20 (43.0)
다자간원조 비중(%)	487.9 (25.4)	485.4 (24.8)	512.2 (23.7)	809.7 (31.1)	663.6 (26.6)	660.5 (21.7)	787.3 (22.5)

주: 2013~17년은 실적, 2018~19년은 예산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30.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ODA 참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수가 2010년 36개에서 2014년 45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 ODA 규모 또한 2010년 38억 100만 원에서 2014년 149억 8,9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민관협력 사업 확대 등 비정부 부문의 ODA 추진 과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민간 부문이 주요한 참여자로 부각되고 있다. NGO에 의한 무상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기업은 국제사회 공헌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준수 및 공유가치창출(CSV)과 더불어 잠재적 시장인 개발도상국 진출 방법으로 개발협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 ODA 양적 성장과 ‘종합조정 체계’ 구축 등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원조 이원화,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 부실 등 일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내외 환경 변화와 중견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가치와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추진을 위해 SDGs의 이행 및 인도적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가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점협력국별 전략, 일자리정책, 대외정책 등 다른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민간의 ODA 분야 참여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국민 이해와 지지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접점 확대, 민관협력 사업 등 민간의 ODA 참여 기회에 대한 다각화 추진을 통해 ODA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30.

〈그림 4-3〉 2013~2019년 GNI 대비 전체 ODA 규모

P4G 5대 분야와 관련된 국내 ODA 사업 현황은 〈표 4-5〉와 같다.

〈표 4-5〉 P4G 분야와 2019년도 부처 ODA 사업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물	네팔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미얀마 툰페 운하 개선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방글라데시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베트남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 사업(2차)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베트남 티엔탄 상수도 사업(2차) 보충 용자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스리랑카 데두루 오야 상수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캄보디아 다운트리댐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물	캄보디아 살라타온댐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가나 Wa 상수도 건설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콩고민주공화국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인도네시아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볼리비아 상수공급망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에콰도르 송배전망 확충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물	모잠비크 마니카 2개 지역(Cotine, Mussorizi) 소규모 수력발전 건립	양자무상	기획재정부
물	(KSP-ADB) 타지키스탄 두산베 상하수도 및 위생 개선 지원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물	에콰도르 포르토비에호 상하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물	KSP-ADB 키르기스 통합 수자원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ICT 지원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물	KSP-IDB 페루 통합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 수립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물	KSP-IDB 볼리비아 스마트 수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물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파키스탄 물과 위생(WASH) 분야 포괄적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물	에티오피아 통합적 식수위생 환경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우간다 UNICEF 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 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케냐 분고마주 체폭-키바비 식수 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케냐 UNICEF 투르카나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식수위생 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상수급수 연결 2차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볼리비아 베니주 트리니다드시 상수도 시설 구축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 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물	알제리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물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양자무상	외교부
물	과테말라 수자원통합관리 기술 및 환경보호	양자무상	외교부
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양자무상	외교부
물	한-태 공동연수 (2) -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양자무상	외교부
물	WHO 아프리카 분쟁취약지역 식수위생 및 영양 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물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물	에티오피아 마을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물	이란 수처리 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물	우간다 와키소시 상하수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양자무상	환경부
물	아프리카(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	양자무상	환경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물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양자무상	환경부
에너지	방글라데시 비비아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베트남 팡빈성 태양광 발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니카라과 지방 태양광에너지 공급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니카라과 지방태양광 에너지 공급 사업(2차)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니카라과 콘아일랜드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전력화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에티오피아 술루타-게브레 구라차 전력망 구축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라오스 GMS 북부 송전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미얀마 500kV Taungoo-Kamanat 송전망 구축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2차)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니카라과 지열발전탐사 및 송전망 확충 지원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모잠비크 나갈라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양자무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이란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양자무상	기획재정부
에너지	(KSP-ADB)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에너지	파라과이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에너지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파키스탄 태양광제품 인증시험소 설립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피지 멜라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모로코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농촌·벽지 지역 전력공급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이라크 배전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동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에너지	이라크 배전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동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튀니지 남부지역 5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타지키스탄 전력 소외지역 전력망 구축 및 보건환경 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페루 아마존지역 태양광에너지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 모델 수립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스리랑카 천연가스산업 기술개발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르완다 천연자원 및 에너지 연구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이라크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구축 및 표준체계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파키스탄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및 적용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나이지리아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모잠비크 빈곤 감소를 위한 전기요금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볼리비아 에너지 수요 보호 및 발전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관리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질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역량강화(중남미)	양자무상	외교부
에너지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탄자니아 스마트 전력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라오스 에너지자립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지원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에너지	국제기구협력사업(ADB) (ADB 공동 남아시아 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다자성양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제기구협력사업[ASE AN(ACE)] (ASEAN 공동 개발도상국 에너지효율정책 수립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제기구협력사업[WB(IFC)] (IFC 공동 개발도상국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제기구협력사업(IDB) (IDB 공동 중남미 전력 보급률 향상 및 에너지효율 사업)	다자성양자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순환경제	스리랑카 남부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순환경제	스리랑카 북중부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순환경제	라오스 지속가능한 고체폐기물 관리 방안	양자무상	기획재정부
순환경제	라오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 및 하수처리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순환경제	네팔 폐기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양자무상	환경부
순환경제	캄보디아 연안-해양환경 관리 역량강화	양자무상	해양수산부
순환경제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	양자무상	해양수산부
도시	몽골 국제버스 교체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도시	몽골 시외버스 교체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도시	몽골 시외버스 교체 사업 2차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도시	미얀마 만달레이-미찌나 철도 개보수 사업: 교타웅-메자 최우선 구간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도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도시	볼리비아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양자무상	기획재정부
도시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지원(케냐,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도시	KSP-IDB 에콰도르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도시	KSP-IDB 페루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S) 수립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다자성양자	기획재정부
도시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베트남 교통 분야 DEEP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스리랑카 주택개발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파키스탄 펀자브주 운송시스템 운영효율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에콰도르 교통안전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콜롬비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교통 부문 국가계획 수립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중남미)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도시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교통 기능 향상 사업	양자무상	국토교통부
도시	볼리비아 주요 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양자무상	국토교통부
도시	방글라데시 다카 동부지역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양자무상	국토교통부
도시	콜롬비아 국가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양자무상	국토교통부
도시	지속가능 도시화 역량강화 국제훈련	다자성양자	지방자치단체
식량/농업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식량/농업	인도네시아 서부지역 농업관개시설 개선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식량/농업	말리 관개개발 사업	양자유상	기획재정부
식량/농업	베트남 뚜이엔팡성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양자무상	외교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식량/농업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캄퐁참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종합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필리핀 UNICEF 생애 초기 1000일간 영양 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미얀마 예와야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가나 농민협동조합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가나 센트럴주 쌀 가치사슬 체계 향상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우간다 지속가능 농촌개발 시범마을 확산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DR 콩고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카메룬 농촌지역 식수위생 개선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식량/농업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지원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파라과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키르기스공화국 유기농업정책 이행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볼리비아 기후변화 대응 관개 시스템 기술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아제르바이잔 식품 조달 및 공급 시스템 개발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한-태 공동연수 (1) -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 관리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AARDO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개발 및 운영 관리 역량강화(아프리카)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농업협동조합 역량강화	양자무상	외교부
식량/농업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WFP 니카라과 취약지역 학교급식을 통한 기후변화 복원력 구축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WFP 니제르 기후변화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식량안보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WFP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복원력 구축 및 지속가능 식량 시스템 강화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ITC 서부 아프리카 여성 농업인 경제 역량 향상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UNWOMEN 케냐 여성 농업인 경제 역량강화 및 기후변화 복원력 증진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WFP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영양 교육 증진 사업	다자성양자	외교부
식량/농업	우간다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금고(금융협동조합) 현지연수	양자무상	행정안전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식량/농업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우즈베키스탄 시설농업 지원 및 기술전수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볼리비아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기술 전수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캄보디아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에티오피아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우간다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수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터 지원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체계 강화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라오스 햇사이핑지구 채소재배 기술 향상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미얀마 피아폰군 벼농업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쌀산업 역량강화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개발도상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산 사업(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개발)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2단계 협력	양자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ICT를 활용한 농업기술 지도 및 가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다자성양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다자성양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미래 세대 스마트 팜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쌀 가치사슬 발전 지원 사업	다자성양자	농림축산식품부

〈표 4-5〉의 계속

분야	내역사업명	구분	부처
식량/농업	태평양 연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재생에너지 접근성 강화	다자성양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 지원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식량/농업	필리핀 식품가공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식량/농업	미얀마 농기계 분야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식량/농업	에콰도르 식품가공 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식량/농업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역량강화	양자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량/농업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양자무상	농촌진흥청
식량/농업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운영	양자무상	농촌진흥청
식량/농업	친환경 농업 기술 연수-다국가 초청 연수	양자무상	지방자치단체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p.37-146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국내 환경산업 육성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우리나라의 환경R&D는 2011~2015년 8,813억 원에 이르며,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 수출액은 2011년 4조 9,000억 원에서 2013년 7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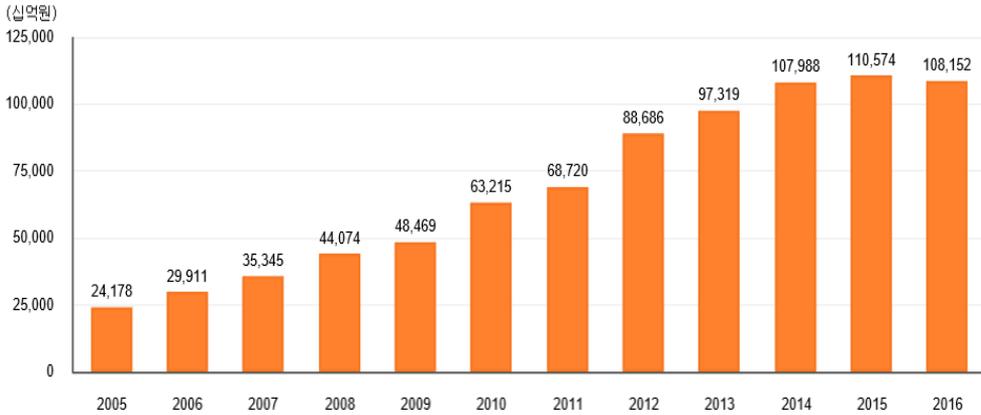
국내 환경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체 경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생산 설비 투자 등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유망 환경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 초기 및 사업 성장 단계에서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한 환경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201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녹색성장 5개년계획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R&D 산업은 성장을 지속하며 자원순환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4년 녹색성장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였고 CCS, C1가스 기술실시계약 체결, 자기부상열차 시범운영 등 부문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녹색산업 종사자 수 비중이 2009년 1.2%에서 2016년 2.2%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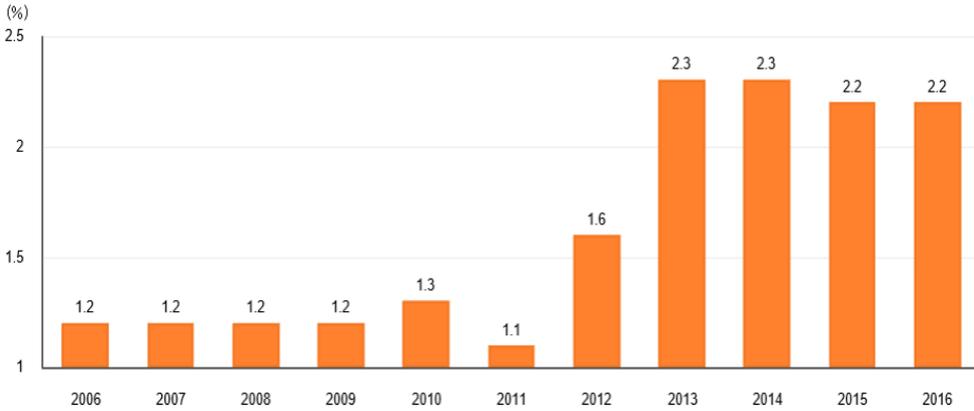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우수 녹색기술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요를 분석하고 유망사업을 도출하였으며, 다자개발은행(WB, ADB 등)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사업 연계 및 참여기업의 실질적 해외시장 진출과의 연계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글로벌 기후·환경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전망되면서, 신시장 선점을 위한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주요국은 기후변화 및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청정시장(Clean Growth, 영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 미국) 등을 제시하였으며, 녹색기술 및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자료: 국가지표체계(2018.9.7), “녹색산업규모”, 검색일: 2019.5.3.

〈그림 4-4〉 녹색산업의 규모



자료: 국가지표체계(2018.9.7), “녹색산업종사자수비중”, 검색일: 2019.5.3.

〈그림 4-5〉 녹색산업의 종사자 수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해외 진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ODA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성공 사례 및 실적 기록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의 녹색 관련 창의적·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ODA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다. Green Hub Korea

Green Hub Korea는 글로벌 외교정책(新南方, 新北方)과 연계하여 신중점 환경협력국 발주처를 확대·발굴하고 대통령 순방국 및 환경부 방문국 고위급을 초청하는 신외교정책이다.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계획 중인 국내 환경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해외 유망 환경·에너지 분야 발주처를 초정해 일대일 상담 등 네트워크 확대 구축을 통한 해외 사업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개최된 ‘2018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서는 상·하수도,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사업 상담회가 개최되었으며, 해외 수주가 유망한 39개국 110개 발주처가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강소 중소기업 250개사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주 상담 규모는 221억 달러에 이른다.

〈표 4-6〉 2018년 GGHK 주요 발주처 및 유망 프로젝트 목록

국가명	발주처명	분야	규모(백만불)	프로젝트 정보
알제리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부	폐기물	470	- 프로젝트명: 하미시 폐기물 복합처리시설 - 발주방식: 미정 - 재원: PPP - 입찰예정일: 2019년(잠정) - 진행현황: 입찰 준비 중
이집트	가르비아주 상하수도공사	수처리	120	- 프로젝트명: 탄타 폐수처리 프로젝트 - 발주방식: 경쟁 입찰 - 재원: ODA + 정부재원 - 입찰예정일: 2019년 상반기 - 진행현황: 총괄기구 검토 중
탄자니아	다레살렘 상하수도청	수처리	60	- 프로젝트명: 다레살렘 하수처리장 설계 - 발주방식: 공개 입찰 - 재원: 세계은행 - 입찰예정일: 2018년 12월 - 진행현황: 입찰 준비 중

〈표 4-6〉의 계속

국가명	발주처명	분야	규모	프로젝트 정보
네팔	카트만두 상하수도 공사	수처리	18	- 프로젝트명: 하누만갓 하수처리장 사업 - 발주방식: 공개 입찰 - 재원: ADB - 입찰예정일: 2018년 12월 - 진행현황: 입찰 준비 중
필리핀	공공도로부	수처리	200	- 프로젝트명: 마닐라 홍수방제 사업 - 발주방식: 경쟁 입찰 - 재원: 세계은행 - 입찰예정일: 2018년 12월 - 진행현황: 예비 심사 중
방글라 데시	다카 상하수도청	수처리	530	- 프로젝트명: 레이머바자 하수처리 사업 - 발주방식: 공개 입찰 - 재원: ADB - 입찰예정일: 2019년 - 진행현황: 컨설턴트 입찰 평가 중
스리랑카	상하수도청	수처리	128	- 프로젝트명: 자프나 상수도 사업 - 발주방식: 공개 입찰 - 재원: ADB - 입찰예정일: 2018년 12월 - 진행현황: ADB 차관 승인
베트남	BIWASE	폐기물	100	- 프로젝트명: 폐기물에너지화 프로젝트 - 발주방식: 수의 계약 - 재원: PF - 입찰예정일: 2019년 하반기 - 진행현황: 사업 추진 준비 중
러시아	국가환경운영국	폐기물	50	- 프로젝트명: 벨고로드주 폐기물 프로젝트 - 발주방식: 경쟁 입찰 - 재원: 주정부 - 입찰예정일: 2019년 상반기 - 진행현황: 입찰 준비 중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8.9.5).

3. 국내 기업 해외 진출

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사업

2019년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사업 8개에 총 1,9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 강소·선도기업에 예산의 10~20%가 집중되며, 온라인 수출과 한류 수출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신흥방·신북방 국가 등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강화되는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정상순방 등을 활용하여 신흥방·신북방 지역의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중소기업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수출시장의 인증 획득에 우선 지원된다. 또한 수출바우처와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정책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수출바우처는 수출규모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 화하고, 수출기업(초보, 유망 등)을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등 4개 사업을 1개로 통합하고 스타트업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수출컨소시엄, 무역축진단, 내수기업 등 수출기업회의 3개 사업을 1개로 통합하고 컨소시엄의 각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한다.

〈표 4-7〉 수출바우처 신청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지원한도(백만원)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해외 진출 희망 스타트업	30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	3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30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 달러 미만'	50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 달러 미만'	80
글로벌강소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상' & 매출액 100~1,000억 원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2.7).

나. K-스타트업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예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가능성 확인 및 창업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하는 '2019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액셀러레이터는 현지 액셀러레이터³⁰⁾가 제공하는 현지 시장·기술트렌드 정보,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60개 사 내외의 규모로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하)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구성되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 국가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표 4-8〉 20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예시)

구분	총 사업비 (C)	정부지원금 (A)	창업기업 대응자금(B=C의 30% 이상)	
			현금(C의 10% 이상)	현물(C의 20% 이하)
금액(원)	28,600,000	20,000,000	2,900,000	5,700,000
비율(%)	100	69.9	10.1	1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3.27).

다. K-Global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단일 브랜드로 통합·연계한 2019년도 'K-Global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ICT 분야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예비단계부터 해외 시장진출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ICT 창업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기업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며,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을 단일 브랜드(K-Global 프로젝트)로

30)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는 신생 스타트업 대상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큐베이터가 액셀러레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합하고 각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총 사업비 837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K-Global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으로는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 혁신기업 성장 지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표 4-9〉 2019년 K-Global 프로젝트

구분	K-Global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기관	예산 (억원)
ICT 일반 창업성장 지원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ICT 분야를 대상으로 창의·혁신적인 사업화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NIPA	10
	ICT 혁신기업 성장 지원	- ICT DNA(Data-Network-AI) 기반의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고도화, 현지화 등) 지원	NIPA	29.18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국내외 ICT 분야 액셀러레이터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육성	NIPA	20.16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 ICT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능력 제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모델 구체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의 2단계 지원(1단계 사전기획, 2단계 R&D)	IITP	43.06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 (융합촉진형)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융합 신시장 창출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ICT 기반의 융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 (혁신도약형) ICT 분야 신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CT 기술 도약(jump up)의 기술개발 능력이 필요한 단기 사업화 과제	IITP	40
	K-Global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용자)	- ICT 및 융·복합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용자 지원	IITP	270
	K-Global 창업 멘토링	- 성공·실패 경험이 있는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창업성공과 기업성장을 지원	KoEF	29.9

〈표 4-9〉의 계속

구분	K-Global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기관	예산 (억원)
ICT 일반 해외 진출 지원	K-Global 해외 진출 지원	- 국내 유망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전문 프로그램 제공	KAIT	53.03
	해외 IT 지원센터 운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ICT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해외 바이어 및 투자자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입주 공간 제공 및 진출 전략, 지원 정책 등 추진	KOTRA, NIPA	55.4
	KIC 운영	-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정보 공유 증진, 과학기술·ICT 유망 기술 글로벌 진출 및 인력 양성 지원	NIPA, NRF	38.68
	정보통신 방송 해외 ICT 로드쇼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 시장 환경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에서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일대일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설명회 개최 등 현장 마케팅 지원	NIPA	7
	K-ICT BOOT CAMP 인디아	- 국내 IT기업(SW, 디지털콘텐츠 등)의 인도시장 진출 초기에 필요한 정보, 생활 인프라, 비즈니스 인프라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상시 BOOT CAMP 운영	NIPA	6.7
SW	SW고성장클럽 200	- SW 분야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NIPA	85
빅데이터	K-Global DB-Stars	-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고도화를 위해 개발지원금·컨설팅·멘토링 등 데이터 특화 비즈니스 지원	K-DATA	12.5
	K-Global 데이터 글로벌	-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의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 및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K-DATA	7.46
	K-Global 빅데이터 Start-up 기술지원	- 빅데이터에 특화된 분석·개발 인프라 및 기술 멘토링, 기술교육, 사업화 등 지원	NIA	8.67
핀테크	핀테크 서비스 보안성 강화 컨설팅	-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앱 취약점 분석·개선 및 단독화 웹서비스 모의해킹 보안관리체계 수립 지원	KISA	6
	핀테크 API 개발 지원	- IT기업 및 비금융권 중소기업이 보유한 핀테크 기술의 API 개발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핀테크 서비스 사업화 지원	KISA	1

〈표 4-9〉의 계속

구분	K-Global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기관	예산 (억원)
	핀테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 동남아시아 등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발굴하여 현지 진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KISA	1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성장 지원	-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프로토타입 설계·구현 및 기술적 관점의 사전검증(PoC) 지원	NIPA	50
	블록체인 시장활성화 지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NIPA	10
IoT	IoT 해외 로드쇼	- 국내 공공·민간 분야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IoT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산업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NIPA	3.46
	IoT 쇼케이스	- 제조 등 6대 전략 분야 내 국내 IoT 기업의 사업화 판로 확보를 위해 인지도 확보 및 시장 레퍼런스 구축에 필요한 파트너십 지원	NIPA	0.7
정보 보호	정보보호 스타트업 해외 진출	- 정보보호 분야 우수 스타트업에 대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KISA	3.75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 정보보호 분야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성장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	KISA	1
클라우드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 아이디어만으로 손쉽게 SW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SW 개발환경 등 지원	NIPA	9.2
미디어	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스마트미디어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KCA	17.4
콘텐츠	K-Global 스마트콘텐츠 허브 활성화	-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	NIPA	3.8
디바이스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 스마트 디바이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작전문 교육,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등 추진	IITP	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2.12).

라.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내수시장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으며, 그중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한다. 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표 4-10>과 같은 대내적, 대외적 애로사항에 직면한다.

<표 4-10> 중소기업 해외 진출 장벽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내용
대내 장벽	정보	- 시장정보 부족 - 시장기회 식별의 어려움 - 해외구매자와 접촉이 어려움
	인적자원	- 해외진출 준비 시간 부족 - 해외진출 담당 인력 부족 - 해외 피고용인 관리의 어려움
	금융	- 해외진출 운영자본 부족 - 해외진출 투자자금 부족 - 해외진출 보험 부족
	생산 및 가격	- 신상품 생산의 어려움 - 제품 디자인/스타일 적응의 어려움 - 제품 품질/표준 맞추기의 어려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초과생산능력 부족 등
	유통, 물류, 프로모션	- 해외 유통채널 확보의 어려움 - 신뢰할 만한 해외 경영자 선정의 어려움 - 과도한 운송/보험 비용 - 기술/AS 제공의 어려움 - 해외 프로모션의 어려움
대외 장벽	절차	- 낮은 수출 절차와 서류 - 해외구매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움 - 해외 수급에 장시간 소요 -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의 어려움
	정부	- 자국 정부 지원의 부족 - 자국의 불리한 규제 - 외국 정부의 불투명한 규제

〈표 4-10〉의 계속

대분류	소분류	내용	
	소비자, 해외 경쟁자	- 해외소비자의 특성 차이 - 강도 높은 경쟁	
	사업환경	- 외국의 경제상황 변동 -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 - 외국의 낮은 사업관행 - 사회문화적 차이	- 언어적 차이 - 전자상거래 인프라 부족 - 정치적 불안정성
	관세 및 비관세	- 고관세 장벽 - 부적절한 사유재산 보호 - 보건, 위생, 기술 측면의 규제 - 자의적인 세번 분류	- 불리한 수량규제 또는 엠바고 - 통관절차의 고비용, 불편 - RTA에 의한 특혜관세와의 경쟁

자료: 김정곤 외(2014), p.35.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뿐 아니라 투자, 기술 및 프랜차이즈 수출입, 전략적 제휴, 자원개발 등 비즈니스 영역의 글로벌화에 따른 지원, 자원과 경험의 한계를 극복할 글로벌화 지원, 국제비즈니스의 리스크 및 불확실성 등 장래 위기에 대비한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정부기관조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전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의 지원을 총괄하는 현지의 중소기업 협의체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과학기술 ODA

한국은 2015년 12월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를 지정한 이후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발굴 및 육성, 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획 수립 주도 및 관련 활동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처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기후기술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기술협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의 NDE 입장에서 CTCN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공여국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가로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필요한 한국-선진국 간 협력 어젠다 발굴 및 호혜적 관계 구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의 양적 확대와 전략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앞으로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 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전략 분야에서 국내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화, 양자·다자간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연구 기반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지진, 수자원,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고갈,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글로벌 어젠다의 해결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공동 프로그램(ITER, Horizon 2020, CERN 프로젝트, CTCN TA, UNISDR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 해양, 산림, 환경,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단계적 확대 전략이 모색되고, 감염병·에너지·미세먼지 등 인류 공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 강화 및 공동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 원조(ODA)의 체계성·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부처·기관별 개별적 추진체계에서 벗어나 ODA 수행부처 및 수행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아세안, 아프리카 권역별 현지거점을 설립하고 ODA 사업의 중장기 대규모 프로그램화, 국제기구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한 지원성고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ODA 사업을 활용하여 청년·퇴직과학기술인 등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등이 도모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외교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거점을 권역별로 연계하고,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 거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 R&D센터, 해외 VC 등의 국내 유치,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현지 기업·VC 대상 기술/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권역, 협력목적, 협력유형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국가별·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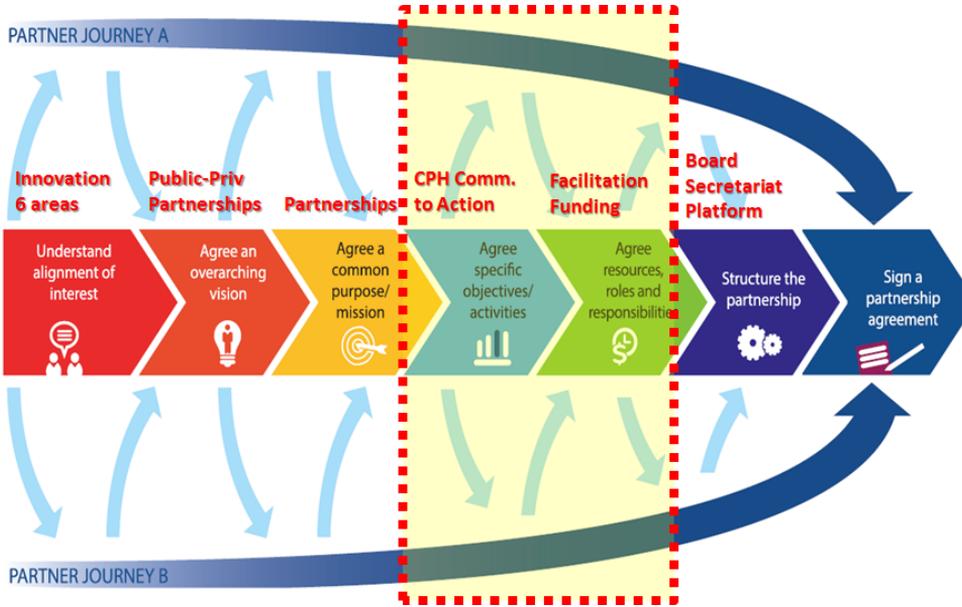
정책 제언

1. SDGs 지원 강화를 위한 P4G 장기 의제 제언

최근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적 파트너십들은 SDGs 자체가 목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빈곤, 개발, 환경 등 일부 특정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과거 파트너십과 크게 구분되는 것이며, 「2030 의제」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 중 하나이다. 「2030 의제」는 지역적·지구적 협력을 의제 이행의 핵심적 수단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원칙으로 제시하였다(「2030 의제」 21번째 단락).

- 국가들의 현실 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 정책과 우선적 과제를 존중하는 한편, 자국 내에서 그리고 지역 및 지구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련 국제규칙 공약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 자율성을 존중한다.
- 지속가능발전에서 지역·소지역 차원, 지역 경제통합 및 상호연계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030 의제」를 통해 합의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의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SDGs와 관련한 국가 간의 모든 협력에 적용된다. 의제는 개별 회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국가 고유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모든 국가 간 협력관계의 SDGs 일관성(consistency)’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신 이 원칙이 기존 국가 간 협력관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개별 국가의 정책적 노력과 국가 간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원칙 및 목표와 정합적(coherent)이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³¹⁾



자료: UN DESA(2015)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5-1〉 일반적 SDGs 파트너십 구축 과정과 P4G의 관련 요소

이러한 맥락에서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는 행동이 「2030 의제」에서 합의된 원칙과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30 의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의 5개 영역(areas)에서의 기본 원칙과 관련 국제협약, 조약 등을 제시하는데, 이는 17개 SDGs와 169개 세부목표 설정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그 이행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둘째, 글로벌 파트너십은 참여국의 SDGs 관련 정책·노력과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과거 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 평가요소로 사용되던 정책정합성은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2030 의제」 등장 이후 지속가능발전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³²⁾

31)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지구적 협력에 관한 목표인 SDG 17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를 그 14번째 세부목표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위한 정책정합성 제고 메커니즘을 도입한 국가 수’를 그 측정지표로 제시한다.

셋째, 의제 채택 이후 UN 기관을 중심으로 지구적·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별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SDGs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SDGs)'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SDGs 목표별로 분류된 파트너십 정보를 제공한다.³³⁾ 이 플랫폼의 목적은 분야별 파트너십을 소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지구적 SDGs 달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새로운 파트너십은 기존의 분야별, 지역별 SDGs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통해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과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P4G 파트너십의 SDGs 지원 강화 요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장기 의제를 제안한다.

I. P4G 파트너십의 개발도상국 SDG 지원 강화를 위한 의제

- P4G 파트너십 개발에서 SDGs 상호연계성 기반의 통합적 접근 도입
- 다른 SDGs 파트너십과의 연계를 통한 P4G 파트너십의 지구적 확산
- 민관협력의 장애요인 제거와 시장주도형 파트너십의 개발·확산
- P4G 국내 플랫폼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SDG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II. P4G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구적 SDGs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의제

- P4G 파트너십 기반의 글로벌 SDGs 솔루션 시장 형성
- 혁신적 과학·기술 지식 기반의 SDGs 벤처 육성 및 지원
- P4G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국제적 인력 교류 확대
- P4G 회원국 간 SDGs 솔루션 시장 연계
- 개발도상국 SDGs 도전 및 사업 수요의 체계적 분석과 관리
- SDGs의 상호연계성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3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통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OECD(2015)를 참고한다.

33) 플랫폼 주소는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s/>이다.

2. P4G 국내 플랫폼 강화

P4G 회원국은 ‘국내 플랫폼(national platform)’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서 P4G 관련 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의 주요 역할은 P4G 관련 회의 참석 및 주관, 파트너십 구축 및 참여, 국내 파트너십 점검 및 성과보고 등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플랫폼은 외교부가 사무국을 맡아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8년 7월 28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국내 플랫폼은 총 4차례의 플랫폼 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최 시기 및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교부, 환경부, 2019)

- 제1차 국내 플랫폼 회의 (2018년 9월 4일)
 - P4G 국내 플랫폼 소개 및 운영 방안
 - 중점분야(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식량/농업) 관련 민관협력 성과 사례 발굴
 - 국내 플랫폼 운영 현황 공유 및 관련 의견 교환
- 제2차 국내 플랫폼 회의 (2018년 10월 4일)
 - P4G 국내 플랫폼 활동 현황 공유
 - P4G 고위급행사 참여 계획 논의
- 제3차 국내 플랫폼 회의 (2018년 12월 19일)
 - P4G 국내 플랫폼 활동 현황 공유
 - 2019년도 P4G 파트너십 지원 사업 설명회
- 제4차 국내 플랫폼 회의 (2019년 3월 29일)
 - P4G 국내 플랫폼 활동 현황 공유
 - 「2030 의제」하에서 P4G 역할 강화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논의

P4G는 매년 개발도상국 내 녹색성장 관련 민관협력 사업(P4G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P4G 파트너십 선정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과 연결, 자금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기 파트너십 선정 절차는 2018년 11월 30일에 개시되어 2019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15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P4G 코펜하겐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한국-덴마크 협력 사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중소기업, 주한 덴마크 대사관 및 덴마크 물 기업 등이 참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능형 물관리(스마트 물관리)’와 정수처리 체계, 하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누수 관리, 수상태양광 등 물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의 발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 개최는 해외 물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혁신과 발맞추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국내 기업 참여 활성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고려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3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함께하는 ODA’에 ‘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세부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파트너십 다양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지원’, ‘ODA 생태계 조성’이 제시되었다. 우선, 민간 파트너십 다양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대상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사업이 ODA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ODA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관련 종사자의 ODA 전문성 제고와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 제시되었다.³⁴⁾

이와 더불어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을 통한 ODA 사업 추진’을 개발도상국 SDGs 이행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³⁵⁾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관계부처 공동(2015), p.66.

35) 관계부처 합동(2018), p.22.

-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 해외시장 개척 등 KOICA CTS 프로그램 강화
 - 소셜벤처 분야 혁신 기술 프로그램 파트너 양성사업 신설
- ODA 사업수행자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권소사업 우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등
- 프로그램 개설(KOICA), 국제회의 개최(KOTRA) 추진 등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기업의 P4G 파트너십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민간 파트너십 ODA 사업과 연계된 P4G 파트너십 발굴
- 개발도상국 SDGs 도전 및 기술·솔루션 수요를 파악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
-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P4G 연계

P4G 파트너십은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과 공공 부문의 지원이라는 기본구조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연계된 사업은 높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에 비해 더 큰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들의 P4G 파트너십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나. P4G 파트너십 사례의 국내 전파

P4G 코펜하겐 행동선언에서는 국가, 지역과 지방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장애물 해소, 야심찬 정책 실행 촉진, 시행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이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혁신·기술·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노력 강화를 추구하고,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의 효과 확보, 기후변화 대응, 빈곤 대처, SDGs 달성에 필요한 지식, 전문성, 네트워크 제고를 추구하고면서 민관협력을 개발 및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차 P4G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 지자체, 시민 사회 및 기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코펜하겐 행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다자주의, 제도적 협력, 지식 및 전문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산업/기업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십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 P4G 국내 플랫폼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서 P4G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기업과 함께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파트너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SDGs 달성에서 시민사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 수요자이다. 시민사회는 그 지역에서 어떤 지속가능발전 도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이해당사자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3대 기본방향 중 하나인 '함께하는 ODA'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세부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이어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세부과제로 포함되었는데,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³⁶⁾

-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 시민사회 협력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시민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파트너십의 필요성, 목표와 비전, 추진원칙 등 포함)
-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확대
 - 기존 대화 채널(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논의 내용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통 확대 추진
 - KOICA 민관협력 협의 정례화(분기별) 및 EDCF 자문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 참여 등 추진

36) 관계부처 합동(2018), p.27.

○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내실화

- 정부-시민사회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SDGs 도전을 발굴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국지적 정보를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P4G 파트너십에 기여한다. SDGs 달성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2030 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에서 강조되어 왔다. P4G 이니셔티브는 시민사회를 파트너십에서 하나의 독립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SDGs 파트너십과는 구분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2.12),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사업(K-Global 프로젝트) 통합안내문”.
-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2018),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김호석 외(2018),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정곤 외(2014),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유리(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II」, 한국국제협력단.
- 외교부, 환경부(2019), 내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3.27), “20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비) 창업기업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2.7), “2019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
- 행정안전부·KDI(2018),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Localization)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방안 연구」.
- 환경부 보도자료(2018.9.5), “2018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해외 유망 발주처 한자리에”.

[국외문헌]

- ICS(2017), *A Guide to SDG Interactions: From Science to Implementation*,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doi: 10.24948/2017.01.
- Nilsson, M., D. Griggs, and M. Visbeck(2016), “Policy: Map the Interaction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ure*, 534, pp.320-322. doi: 10.1038/534320a.
- OECD(2015),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DG Framework*.

P4G(2018a), *Copenhagen Commitment to Action*.

P4G(2018b), *P4G Partnership Fund: Guidelines for Applicants*.

Stibbe, D., S. Reid, and J. Gilbert(2018), *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 The Partnership Initiative and UN DESA.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A(2015), *Policy Integration in Government in Pursui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DESA(2018), *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 A Practical Guide to Partnership Value Creation*.

UN Environment(2018), *One Plan for One Planet: 5 Year Strategy 2018-2022*.

UN ECOSOC(2018), *Progress towards the SDGs*.

UN Environment(2018), *One Plan for One Planet: 5 Year Strategy 2018-2022*.

UN ESCAP(2017),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온라인자료]

국가지표체계(2018.9.7), “녹색산업규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9008>, 검색일: 2019.5.3.

국가지표체계(2018.9.7), “녹색산업종사자수비중”,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9009>, 검색일: 2019.5.3.

외교부, “문재인 대통령 해외방문”, http://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79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검색일: 2019.4.30.

지속가능발전포털, “SDGs를 위한 파트너십”, http://ncsd.go.kr/app/sub07/217_tab2.do, 검색일: 2019.4.30.

- 3GF, “The Forum”, <http://www.globalgreengrowthforum.com/the-forum/>, 검색일: 2019.4.30.
- P4G, “About P4G”,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about-p4g>, 검색일: 2019.4.30.
- P4G, “Our Focus Areas”, <https://p4gpartnerships.org/>, 검색일: 2019.1.14.
- P4G, “Our Network”,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our-network>, 검색일: 2019.4.30.
- P4G, “P4G Partnerships”,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p4g-partnerships>, 검색일: 2019.4.29.
- P4G, “What is a P4G Partnership”, <https://p4gpartnerships.org/content/what-p4g-partnership>, 검색일: 2019.4.30.
- SDG Knowledge Platfor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검색일: 2019.1.14.
- WHO, “Household air Pollution and Health”,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household-air-pollution-and-health>, 검색일: 2019.9.10.

Abstract

Development of P4G Partnership Agenda and Study on Domestic Countermeasures

Hoseok Kim, Hyunsuk Kong

On 19-20 October 2018, the P4G Copenhagen Summit was held to form a powerful global coalition for sustainable growth through innovative partnerships.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 is a global initiative with the ambition of becoming the world's leading forum for developing concre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t scale to deliver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P4G promot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ive key areas: water (SDG 6), energy (SDG 7), cyclical economy (SDG 12), urban (SDG 11), and food/agriculture (SDG 2), in order to accelerate the achievement of global goals such a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Korea's P4G domestic platform was officially launched on July 28, 2018 af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ok charge of the secretariat and consulted with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nation has already stressed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4G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se countries' SDGs by sharing

their future achievement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with developing countries.

Various support is provided to achieve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Globally, P4G should be able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with coordinated activities along with other SDGs partnerships, and domestically strengthen its link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ector-specific policies. The SDGs partnership maintains consistency with the 2030 agenda principle and is promoting various sectoral initiatives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and the new partnership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increas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rough linkage with existing sector- and region-specific SDGs partnership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d proposed an agenda for P4G to function as an important SDGs partnership, while suggesting how Korea should link and utilize P4G partnerships with domestic policies.

Keywords : 2030 Agenda, S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Partnership, public-private partnership

■ 저자약력

김호석 (연구책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hoskim@kei.re.kr

주요 연구실적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 국가자발적공약 연계 이행에 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2017)
- Universality, Integration, an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RI, 2016)
-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공현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hskong@kei.re.kr